

---

# 지식공유사업 발전방향 연구 출장보고서

---

2024. 8. 25. ~ 9. 4.

**KDI** 한국개발연구원

## 1 배경 및 목적

- 현재 진행 중인 “지식공유사업의 발전방향 연구”에서는 지식공유사업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국제개발협력과 지식공유의 의의와 실제 주요 사례별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지식공유사업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크게 4개의 주제로 구성
  - 미래지향적 사업구조 설계, 지식공유사업의 전문성·효과성 제고, 지식공유사업의 지속성·안정성·효율성 강화, 지식공유사업의 평가체계 확립 및 성과 확산
-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해외의 우수 국제개발협력 및 연구기관을 조사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 사례를 발굴하여 지식공유사업 발전 방향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 연구의 내실을 기하고 심층 분석을 토대로 한 제언 도출을 위하여 OECD DAC 위원회 및 해외 국제개발협력 기관 중 지식공유 및 연구의 성숙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파악된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면담 등을 통한 심층 분석
- 방문 기관별로 특화하여 공여국의 ODA 추진 방향 및 지식 전수 사업 등 본 연구과제 대한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KSP 발전 방향 및 향후 공동사업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
  - 유럽 주요 공여국의 담당자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최근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KSP와 사업 성격 및 목적이 유사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지식협력(knowledge cooperation) 등의 수행 절차 등 정보를 수집
    - 심층분석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덴마크와 네덜란드 MOFA의 지식협력 플랫폼, 독일 IDOS, DANIDA Fellowship Center 등 연구기관을 선정
    -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공유사업의 발전방향 및 공여국 간 지식공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ODA 지식집적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 o OECD에서는 DAC의 ODA 미래 전략 및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지 않는 OECD에 파견된 영국, 노르웨이 등 주요 공여 선진국의 전문가 면담을 통해 공개된 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soft information을 획득
  - 개발협력을 위한 동료학습 플랫폼인 OECD의 TIPs(Tools Insights Practices)는 DAC의 사업수행 원칙 구현에 필요한 사례를 축적하고, 사업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중점을 둔 개발과제 공유를 통해 상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를 통한 지식집적 추진에 대하여 논의

## 2 출장 개요

- 기간: 2024년 8월 25일(일) ~ 9월 4일(수), 한국 출·입국일 포함
- 출장지: 독일 본(뮐른), 프랑스 파리, 덴마크 코펜하겐, 네덜란드 헤이그 (암스테르담)
- 출장단: 총 1명

#	성명	소속 및 직위
1	손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겸임연구위원

- 주요 활동
  - o 유럽 주요 선진 공여국 및 OECD DAC의 최근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KSP와 사업 성격 및 목적이 유사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지식협력(knowledge cooperation) 등의 수행 절차 등 정보를 수집
  - o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공유사업의 발전방향 및 공여국 간 지식공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ODA 지식집적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 3

## 출장 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8.25(일)	10:50	인천공항 출발	KE945
	17:40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20:09	프랑크푸르트 공항역 - 쾰른역	기차
8.26(월)	09:32	쾰른역 -본역	기차
	10:30-11:30	IDOS (Stephan Klingebiel, Niel Keijzer)	
	12:00-13:30	UNFCCC (Kiyong Moon)	
	14:04	본역 - 쾰른역	기차
	16:44	쾰른역 - 파리역	기차
8.27(화)	10:00-11:30	OECD DAC (Emily Bosch, Soonyeol Chung)	
	14:00-15:30	UK delegate to OECD (Beth Yates, James Vigni)	
8.28(수)	13:00-15:00	OECD DAC (Megan Grace Kennedy-Chouane, Alehandro Gurrero)	
	15:30-16:30	Norwegian Delegate to OECD (Hege Rottingen)	
8.29(목)	12:50	파리 출발	AF1850
	14:45	코펜하겐 도착	
8.30(금)	10:00-11:30	Danish Ministrty of Foreign Affairs (Tove Degnbol, Marie-Louise Koch Wegter)	
	13:00-14:30	DANIDA Fellowship Center (Ulla Naesby Tawiah)	
8.31(토)		공휴일 (면담 정리 및 준비)	
9.1(일)	11:50	코펜하겐 출발	KL1270
	13:15	암스테르담 도착	
9.2(월)	08:50	암스테르담역 - 헤이그역	기차
	10:30-11:30	NUFFIC (Monique Knaapen)	
	14:00-16:00	Dutch Ministrty of Foreign Affairs (Jorrit Oppewal, Henny Gerner)	
	16:00-17:00	KUNO (Peter Heintze)	
	18:19	헤이그역 - 암스테르담역	기차
9.3(화)	21:30	암스테르담 공항 출발	KE926
9.4(수)	16:40	인천공항 도착	

\* 면담일정 및 대상자는 당초 출장계획 대비 일부 조정하여 시행

## 4

## 주요 활동사항 및 관련 내용

### 가. German Institute of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IDOS)

- 일시: 2024년 8월 26일(월), 10:30-11:30
- 장소: IDOS, Bonn, Germany
- 참석자: Stephan Klingebiel (Head of Research Programme, Programme Inter- and Transnational Cooperation), Niel Keijzer (Senior Researcher and Project Lead, IDOS Coordinator of European Think Tanks Group)

- (IDIO 개요) 독일 개발 및 지속 가능성 연구소(German Institute of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IDOS)는 유엔 도시 본(Bonn)에 기반을 둔 글로벌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에 관한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중 하나
  - 정책자문 및 역량강화 활동을 통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독일 연방정부(75%)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th Rhine Westphalia) (25%)가 분담
  - 자문활동의 기초를 형성하며 정책관련 개념을 개발하는 한편 부처, 정부 및 국제기구에 조언하며 현재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취하기도 함
  - 대졸자 및 젊은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대학원 프로그램, BMZ 아프리카-독일 리더십 아카데미 및 글로벌 거버넌스 관리 프로그램들이 연구 및 자문 과정에 통합되어 있음.
- (정책자문) 독립적이고 과학적 기반을 둔 연구를 수행하며, 정책 권고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 네트워크와 협력하며 글로벌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
  - IDOS는 주로 지속가능개발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다루며 독일, 유럽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제공. 정책 조언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건전한 연구에 기초함
  - 의사결정자들에게 정책 및 협력을 조직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제안을 제공
  - 대상 그룹에는 독일, 유럽 및 그 이상의 공공기관이 포함되며, 특히 BMZ를 비롯한 독일 정부 부처, 의회, 유럽 기관, 국제기구, 개발 협력을 위한 시행기관 및 기타 정책 형성 기관에 제공

- IDOS의 전문가들은 토론, 학술 자문 위원회 및 전문가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다양한 학술적 의견을 제공
- 연구와 출판은 실천 지향적인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① 국제 및 다국적 협력, ②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전환, ③ 환경 거버넌스와 변화, ④ 정치적 (무)질서의 변형 등 4개의 연구 프로그램과 교차 연구로 구성되어 있음
- (정책자문 형식)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자문을 제공
  - ① 의사 결정자와 직접 접촉
  - ② 외부 조언 : 연구 기반 지식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시
  - ③ 조직적 정책 조언 (transformational policy advice) : 실행 가능한 정책 옵션을 고안하고 당사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지식을 제공.
  - ④ 집단 정책 자문(collective policy advice) : 다양한 분야의 학자, 독일 및 국제 자문 기관이 함께 권고안을 협력하여 개발
  - ⑤ 교육 정책 자문 (educational policy advice)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여하는 의사 결정 위치에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내 및 국제 교육 및 후속 교육기회 제공
  - ⑥ 공공 정책 자문(public policy advice) : 공공 행사, 출판물 및 기타 미디어를 사용하여 정책수립, 비즈니스 및 사회분야에서 다양한 주체에게 접근하고 이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한편, 미디어 (Twitter, YouTube, Facebook, LinkedIn)를 사용하여 연구 결과와 제언을 전파

#### 나.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일시: 2024년 8월 26일(월), 12:00-13:30
- 장소: UNFCCC, Bonn, Germany
- 참석자: Kiyong Moon (Policy Analyst)

- (UNFCCC 개요) UNFCCC 사무국은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은 UN 기구로써 1992년에 제네바에 설립하여 1997년 독일 본으로 이전

- 본 협약은 199개 당사국이 회원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파리협정 및 교토의정서의 모체 조약임.
- 현재 약 450명의 사무국 직원은 100개국 이상에서 왔으며 다양한 문화, 성별 및 직업적 배경을 갖고 있음
- UNFCCC는 온실가스 감축, 재정 및 금융 안정화, 데이터 및 정보공유, 참여 강화를 목표로 하여 운영
- (주요 활동) 주요 업무는 각국이 협약, 교토 의정서,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기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간 협상 지원 외에,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참여를 강화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금융, 경험 및 역량 구축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facebook, Twitter, Instagram, LinkedIn)을 활용한 협상 과정 및 기후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
  - ACE (Action for Climate Empowerment) : ACE의 중요한 목표는 기후 변화 교육과 대중 인식, 훈련, 대중 참여,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국제 협력이라는 6가지 ACE 요소를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기후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Climate Neutral Now : UNFCCC 사무국이 기후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작한 계획 중 하나이며 협약에 따른 탄소 시장 메커니즘의 사용을 홍보함
  - Marrakech Partnership : 고위급 리더십 하에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와 도시, 지역, 기업 및 투자자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이행을 지원
  - 부문별 참여(Sectoral Engagement) : 파리협정의 장기적인 목표 지원 및 기후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 내에서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 Race to Zero 캠페인 : 미래의 위협을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탄력적인 제로 탄소 복구를 위해 기업, 도시, 지역 및 투자자들의 리더십과 지원을 결집하는 것임
  - 지역 기후주간 개최 : 파리협정의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과 올해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 앞서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해 4개의 지역 기후주간 개최 예정
  - 글로벌 기후 행동 허브(Global Climate Action Hub): 일반적인 회의와 현

저하게 다른 행사를 개최하고,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자에게 포괄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

- 유엔 탄소 상쇄 플랫폼 (United Nations Carbon Offset Platform): 기업, 단체 또는 일반 시민이 온실가스 배출을 보상하거나 단순히 기후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및 교육 플랫폼

#### 다.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DCD)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2024년 8월 27일(월), 10:00-11:30</li><li>○ 장소: OECD Boulogne, Paris, France</li><li>○ 참석자: Emily Bosch, Soonyeol Chung (Policy Analyst, Peer Review Team and Reviews, Results, Evaluation and Development Innovation)</li></ul>
---

□ (OECD의 지식공유 플랫폼) OECD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를 게재할 수 있는 플랫폼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가능

- OECD의 TIPs(Tools Insights Practices)로, 개발협력을 위한 동료학습 플랫폼
  - DAC의 사업수행 원칙 구현에 필요한 사례를 추적하고, 사업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중점을 둔 개발과제 공유를 통해 상호 학습 기회를 제공
- OECD Reports
  - 개발협력에 관한 OECD 연례 대표 보고서로, DAC에 새로운 증거, 분석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매년 개발 협력정책 문제를 분석
  -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을 통해 각국의 개별 추세, 자금 흐름, 모범사례 및 과제를 업데이트하여 제공
- OECD Working Papers 시리즈
  - 원조 흐름, 원조 전달 강화 및 개발정책 개선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로 구성
  - 통계, 아키텍처, 효과성, 역량개발, 시스템 및 관리, 프로그램 평가, 무역, 취약성, 환경, 젠더, 거버넌스 및 빈곤감소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데,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평균 2-3개월에 걸쳐 1-2개의 working paper가 업로드되며, 110개의 working paper가 존재

o OECD Development Policy Papers

-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기여를 위한 개발전략을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성장 원천, 개발을 위한 자원 동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개발진행 상황 등 네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작성

□ (지식공유 플랫폼)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경험을 소개하고 여타국과의 사례 공유를 통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는 이 네 가지 플랫폼 중 OECD TIPs가 적절

o TIPs는 기본적으로 동료학습 플랫폼이므로 ODA의 사업수행 원칙 구현에 필요한 사례를 축적하고, 사업 성과와 교훈, 정책적 시사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연계조정제도를 공유하기에 적합

o 발간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fundamental로 OECD DAC가 발전프로젝트를 시행할 때의 기준들과 원칙이 적혀져 있는 ppt 파일이고, 두 번째는 “In practice (실전 적용)” 카테고리, 프로젝트의 개괄과 도전과제 그리고 프로젝트의 효과와 시행 과정에서 배운 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임

□ (KSP에 대한 Peer review) KSP는 지역 리더십과 관련이 있으며 한국이 지식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전달할 수 있는 유효한 프로그램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제약이 발생

o KSP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중심으로 정책 컨설팅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나 참여 연구자가 협력국의 지역적 맥락, 최신 트렌드 등을 접목해 진행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하고 효과성 확보를 위해 많은 변화가 필요

o 정책 컨설팅 중심에서 경제협력을 염두에 둔 협력국과 주제 선정은 ODA 정책의 트렌드와 공여국의 상황에 따라 수용 가능한 것임

- 따라서 기존의 정책 컨설팅과 병행하여 경제협력의 사전 단계로서의 KSP를 활용하는 것은 차관과 인도적 지원과 연계된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o KSP는 주로 양자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공유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등과 더 밀접한 협력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더 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협력국의 현지 전문가도 현재의 수동적인 방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협력국 전문가 양성 등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많은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협력국에 사업을 outsourcing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o 지식공유의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동 검색기능의 구축, 최대한 많은 연관 주제의 보고서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KSP의 확산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
- o KSP 프로그램이 주로 1년의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연구진은 3차례의 출장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협력국과 교류하고 있으나 전문가를 협력국에 파견하고 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KSP 사업을 수행하는 모델로 고려할 필요
  - 이렇게 함으로써 협력국과 더욱 긴밀한 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학계, 공공,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부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o 현재의 N-2 형태의 KSP 사업 운영은 사업의 성격상 적절치 않은데, 그 이유는 협력국에서 요청하는 주제의 시의성이 훼손되기 때문임
  - 차관이나 원조의 경우 상당 기간 사전 조사를 통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ODA 예산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유효한 방법이지만, 정책 컨설팅이나 지식공유사업의 경우에는 주제의 시의성과 활용도 제고가 더 중요하므로 N-2 방식의 사업수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최소한 N-1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
- o KSP 10년사에서 언급된 한국-OECD-독일 간의 Knowledge Sharing Alliance는 개발 커뮤니케이터 네트워크로 이해되나 그 실체가 불분명하며 현재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 o KSP가 한국 고유의 지식공유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공여국도 Knowledge bank, Knowledge creation, Knowledge co-creation, Knowledge Cooperation, Knowledge exchange, Knowledge Broker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식공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협력도 고려할 필요

## 라. UK Delegate to the OECD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2024년 8월 27일(화), 14:00-15:00</li><li>○ 장소: 12 Avenue Gabriel, Paris, France</li><li>○ 참석자: Beth Yates, James Vigni (UK Delegate to the OECD DAC)</li></ul> |
|--|
- 
- (영국의 ODA 개요) DAC 회원국 중 영국은 절대 규모 기준 8위, GNI/ODA 기준 4위의 공여국으로, 개발협력 전략과 안보, 국방, 외교, 통상 등 대외전략의 연계성을 최근 강조하는 추세
    - 2020년 9월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FCDO에 통합되면서 상당 부분(72.3%)의 영국 ODA를 FCDO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 로고인 “UK International Development” 를 사용하고 있음
    - 그 밖에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8.1%), Home Office(8.0%), Conflict, Stability and Security Fund(3.7%),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1.9%) 등이 ODA를 지출
  
  - (글로벌 개발 파트너와의 협력) 영국은 다양한 신흥 개발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
    - 영국은 이러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각자의 학습과 전문성을 공유
      - 예를 들어 터키, 브라질, 한국,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통합하고 촉진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존중과 연대, 경청의 자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에 투자하겠다는 광범위한 외교 정책 의지를 반영
    - 영국은 기존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및 확대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 지역의 개발 파트너와의 관계 증진이 포함됨
      -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중동 전역에서 심각한 개발 문제, 불안정 및 인도주의적 위기의 영향을 받는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공유
      - 인도주의 및 개발 목표 전반에 걸친 공동 작업은 지식을 공유하고, 자금 지원 및 공동 자금 조달을 확대하며, 글로벌 및 지역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문화적 연결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

- 영국은 미국 및 EU와 같은 전통적인 개발 양자 파트너와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 파트너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 UN,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G7 및 G20은 다자간 개혁, 개발 효과성 및 영향력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플랫폼임
- (정부의 개발역량에 대한 투자) 영국 정부의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개발정책을 형성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 영국 개발 전문 외교관의 수를 증대시키는 한편 모든 직원의 개발 및 외교적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
    - 영국 정부 전체에서 개발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일관된 고품질의 개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 효과성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100만 파운드 이상의 개발 프로그램 예산이 있는 공관장에게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감독에 관한 사전 사후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
  - 개발 전문성을 새로운 접근 방식의 초석으로 간주하여, 개발 의제를 주도하고, ODA 프로그램을 설계, 제공 및 설명하는 능력과 파트너와 교환하는 기술 전문성이 포함됨
    - 국제 개발 고문들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이들은 데이터와 증거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지역,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정책, 전략 및 프로그램에 정보를 제공
  - 해외공관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은 누구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이며, 현지 상황에 대한 이들의 이해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보장
    - 따라서 이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개발 경력 경로를 강화
    - 많은 국가에 기반을 둔 직원들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주요 역할을 맡게 되므로 이러한 투자는 미래를 위해 파트너 국가의 기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영국 전문센터, Centers of Expertise of UK) 영국은 녹색 성장, 공공 금융, 무역, 불법 금융, 금융 서비스, 교육, 인프라 및 도시, 민주적 거버넌스, 기후 및 자연, 안보 및 법치, 기술 등의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 전반의 전문 지식을 활용

- 전문센터는 다양한 출처의 리소스를 통합하고 배치하여 다양한 특정 정책 분야에 걸쳐 지식, 학습 및 실천의 허브를 구축
  - 영국의 해외 네트워크와 협력 국가들이 기술 전문 지식 및 기타 개발 도구에 액세스하여 복잡한 개발 문제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원스톱 쇼핑을 제공
- 영국의 오랜 개발 공여의 역사는 민간 부문, 시민사회 단체, 싱크탱크, 학계 등 다양한 전문 지식의 원천에서 비롯
  - 여기에는 국가감사원(NAO) 및 HMRC와 같은 정부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국제적으로 전문성을 공유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음
  - 이러한 지원은 영국 중앙 팀과 파트너 국가에 있는 영국 정부 기관에 의해 배치되었으며, 이들의 생산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효과적으로 조정
- 접근 방식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은 녹색 성장, 인프라, 무역, 공공 금융, 불법 금융, 도시 및 인프라, 금융 서비스, 기술, 교육, 보건 및 민주적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영국이 제공할 수 있는 방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맞춤형하기 위해 영국 전문센터를 운영
  - 전문 지식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기술 자문을 제공하여 투자를 확보하고 사업 운영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에티오피아, 세네갈, 케냐, 르완다, 나이지리아의 제조업에 2억 파운드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
- 영국의 전문가는 수백 건의 경제 정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조세 및 공공 금융 제도, 에너지 및 기타 인프라 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여러 경제 개혁을 지원
  - 또한, 수십만 명의 소규모 농부들의 소득과 회복력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 전역의 조직 및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영국 환자 개발 접근법의 중심이 될 것임
- (과학 및 기술 파트너십 강화) 영국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 과학 및 연구 기관을 통해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과학 기술을 개척해 왔음
- 연구, 국제 교육 및 학생 연계, 장학금을 통해 영국의 교육, 과학 및 연구기관은 영국이 파트너의 전문성을 구축하는 방법의 일부임

- WHO가 최초로 권고한 두 개의 말라리아 백신은 모두 영국의 과학 및 보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
- o 영국은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
  - 여기에는 외교적 영향력이 개발 성과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포함
  - 지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 임팩트 그룹을 위한 다자간 학습 파트너십을 통해 같은 생각을 하는 파트너(미국, 독일, 유엔)와의 협력을 강화
- o 지역 주도의 연구 및 혁신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의 초기 경력 과학자 및 혁신가들의 에너지와 추진력을 활용하여 시급한 과제에 대한 현지 주도의 솔루션을 개발, 평가, 테스트 및 확장
  - 여기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 청정에너지 접근성 가속화, 자연 보호 및 오염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모델, 도시 및 농촌 청년을 위한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 등이 포함됨
  - 데이터와 디지털,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혁신, 생명공학 및 기타 발전의 힘을 바탕으로 사람, 번영, 지구를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증거 및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주요 국제 연구 및 기술 협력과 파트너십을 지원

마.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DCD)

- o 일시: 2024년 8월 28일(수), 13:00-15:00
- o 장소: OECD Headquarters, Paris, France
- o 참석자: Megan Grace Kennedy-Chouane (Advisor Foresight, Outreach and Policy Reform Unit), Alejandro Gurrero-Ruiz (Deputy Director, Reviews, Results, Evaluation and Development Innovation)

-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평가) 지식공유 또는 기술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 중 하나는 프로그램이 개별적인 기술과 지식 전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며 기술이나 지식이 전달되는 협력국의 환경은 다소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임

- 시스템 설치 등의 가이드라인과 매우 진보한 형태의 조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효과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역량 강화에 많은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함
- 지식공유의 대상 주제가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만의 경험과 발전 정도가 해당 국가에서 최선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주제에 집중하고 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의 경우 성공적인 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더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더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이나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 예를 들어 한국에서 교육, 수출진흥, 경제개발계획 등을 주제로 지식공유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한국이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기후 대응과 같은 주제로 사업을 수행하였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신뢰가 주어질지는 의문시
  - 네덜란드의 물 관리, 노르웨이의 조세정책 등과 같이 많은 공여국은 자신이 잘했다고 평가하는 주제를 대상으로 thematic approach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협력국의 경우 한국을 대상으로만 지식공유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를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다양한 정책 보고서를 받게 되는데 협력국 입장에서 어느 국가의 지식공유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
  - 이러한 평가가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평가 자체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 하는데 지속 가능성과 일관성에 대한 우려도 문제
- DAC에서 설정한 6가지 핵심기준, 즉 관련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 지속 가능성을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함
  - 지식공유 과제는 그 결과물의 장기적 영향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추적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수행 시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이 달성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따라서 경제협력이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면 이를 구체화하고, 만약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통한 외교적 관계 향상이 목적이라면 이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성과 평가를 달리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OECD도 평가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지만, 단순 검색 기능에 불과해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는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AI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화하거나 개선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시작
  - 생산되고 공유된 지식을 협력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며 보다 정밀하게는 사업 설계단계에서 증거기반 연구를 착수하는 것임
- 수원국 입장에서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아마도 매우 유사한 지식을 생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축적 활용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며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층의 이해도와 의지가 중요
- 양자 협력에 비해 삼각협력은 비교우위가 있는 공여국과 협력하여 보다 우수한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며, 상호 학습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삼각협력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상호조율 등의 이슈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
- 지식공유사업을 경제협력으로 연계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글로벌 지식 기반의 확장과 상호 학습이라는 순수 동기에서 벗어나는 경우 지식공유가 정치화 수단화될 수 있기 때문임
- 지식공유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의 지식교류가 이루어져야 함

#### 바. Norwegian Delegate to the OECD

- 일시: 2024년 8월 28일(수), 15:30-16:30
- 장소: 33, rue de Franqueville, Paris, France
- 참석자: Hege Rottingen (Norwegian Delegate to the OECD DAC)

(노르웨이 ODA 개요) 노르웨이는 연도별 GNI 대비 ODA 지원 비율이

0.9%를 상회하는 대표적인 북유럽 공여국으로, OECD의 환경마커 표기 비중이 24.3%-17.2%를 기록할 만큼 환경 분야에 많은 지원을 제공

o 노르웨이 정부는 2021-25년 신규정책을 발표하여 기후와 청정에너지, 기아, 불평등, 여성인권, 인도적 지원, 감염병 대응을 우선순위로 밝히고, 이와 연동하여 기아 및 식량안보 전략, 기후변화 적응·재해경감·기아 전략과 젠더와 젠더 다양성 행동계획을 공개

o 정책의 수립은 주로 외무부가 담당하며, 원조 전담기구인 노르웨이 개발청(NORAD)이 대부분의 무상지원 활동을 이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밖에 현지 대사관과 Norec, 개발금융기관인 Norfund 또한 개도국 현지 협력, 학술교류, 대 개도국 투자와 관련하여 노르웨이 개발협력 활동에 참여

□ (Knowledge Bank) 노르웨이는 NORAD 산하에 지식은행(Knowledge Bank)라는 지식공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명칭은 최근에 정한 것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지식공유사업은 1980년대부터 수행되어 왔음

o 노르웨이와 한국의 유사한 점은 노르웨�훈 덴마크와 스웨덴의 일부로 유지되다가 1905년에 독립하여 해외 원조를 받는 매우 가난한 국가였으나 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을 수행하면서 지금의 부유한 국가가 되기까지 어떤 개발전략을 취했는지를 원조국에 전달하고 공유하는 사업을 개시

o 주요 분야로는 노르웨이가 잘 하고 있는 분야인 tax for development, fish for development, oil for development로 시작하여 전문 분야를 점차 넓혀 현재는 12개 분야에 대하여 지식공유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노르웨이가 선도하는 분야가 추가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야가 제거되거나 추가 예산 확보 등이 필요. 예를 들어 고등교육과 같은 분야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fish for development와 ocean for development를 통합하고 이 분야를 추가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

- 주제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사업을 운영되며 12개의 대주제 하에 세부주제가 존재하고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사업을 관리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주제에 대한 지식공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한국의 전문가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협력국에서 그 결과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성도 제한되기 때문임)

o 집권당의 특성에 따라 ODA사업의 핵심분야는 변경되는데 현재의 집권당

은 식량안보, 농업, 스마트시티, 기후 등에 대한 개발자금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당이 집권 시에는 노동권을 중시하는 등 개발 프로그램은 다소 정치화될 위험이 존재

- 그러나 지식은행 사업은 전적으로 비정치적인 프로그램으로 OECD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
-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 혼합 프로그램으로 노르웨이에서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협력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수행 여부를 고려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제와 협력국을 매트릭스로 설계하여 매우 정치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겠지만, 주어진 예산 아래에서는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노르웨이는 주제를 선택한 것임
- o 지식은행 사업수행을 위해 대학과 시민사회와 MOU를 통해 추진하고 필요시 IMF,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연구역량도 참여시키는 한편 협력국과도 MOU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며 다수의 협력국과 유사한 주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 예를 들어, 말라위 통계 규칙 설정과 통계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노르웨이 재무부 통계국과 함께 말라위에 가서 사업을 수행하고 컴퓨터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
  -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노르웨이와 협력국 학생들과도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도 수행
- o 외교부는 포괄적인 책임과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자의 노력이 중요하므로 이들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후속 조치를 논의
- o 지식은행을 통해 기대하는 전략적 결과는 수혜국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동일 국가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지식은행에 보관하고 활용
  - 지식은행은 항상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표준화하고 단순화하여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노력
- o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증가로 ODA 예산 중 Knowledge bank에 투입되는 예산이 감축되는 추세

사.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일시: 2024년 8월 30일(금), 10:00-11:30
- 장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penhagen, Denmark
- 참석자: Tove Degnbol (Director, Evaluation, Learning, and Quality), Marie-Louise Koch Wegter (Director,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Policy)

□ (덴마크의 ODA 개요) 덴마크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원조 공여국으로, 개발도상국과의 양자 협력 및 다자 협력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제공

- 2022년 덴마크의 공적 개발 원조(ODA)는 국내 난민 비용으로 인해 증가하여 29억 달러(USD)에 이르며 이는 국내 총소득(GNI)의 0.7%를 차지함
- ODA 중점분야는 인권과 민주주의, 성 평등, 환경 및 기후 변화, 평화 및 안정, 교육 및 보건 분야로, 분야별로는, 사회인프라(교육, 보건, 행정, 시민사회 등) 분야에 41%, 경제인프라에 10%, 생산부문에 8%가 지원됨
- ODA의 지역별 배분을 살펴보면, 양자 ODA 중 75.4%가 저소득국(LIC) 이하에 지원되었으며, 61.6%가 아프리카 지역에 배정됨(아시아:30.1%, 중남미:6.6%, 유럽:1.7%)
- 거버넌스 체계는 덴마크 외무부가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개발 협력 위원회와 덴마크 의회가 자문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는 다양한 NGO, 국제기구,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실행됨

□ (DANIDA 개요)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는 덴마크 외교부 소속으로, 국제 개발 및 협력에 중점을 두고 운영됨

- DANIDA는 시민사회 단체, 국제기구, 연구기관 및 기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파트너가 참여하는 다중 이해 관계자 접근 방식을 따름
- DANIDA의 개발 협력 전략은 ‘The World We Share’ 이며 빈곤과 불평등, 갈등, 이주 및 불규칙적 이주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전략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덴마크의 개발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며, 희망을 창출하고 가장 어려운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더 잘 돕는 것과 기후 변화를 막고 지구의 균형 회복을 주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과거 DANIDA는 독립적인 ODA 기관이 있었으나 DANIDA가 오래전 외교부의 한 부서로 흡수되었고 이번 주에는 Ministry of Development도 외교부에 흡수되어 덴마크 외교부는 단일 통합 ODA 정책 관리기관이 되었음 (덴마크가 2025년부터 EU의 장국의 역할을 하게 되어 유럽부 장관 신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부를 외교부에 흡수)
- 거대한 부처가 갖는 장점도 있겠지만, 국제개발협력이 정치화되어 개발협력의 진정한 의미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개발협력 전문가의 의견이 부각되지 않는 단점도 동시에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 (DANIDA의 사업) DANIDA 사업으로는 Green Development Cooperation 및 DAPP(Danish Arab Partnership Programme)이 있음.
  - DANIDA 녹색 비즈니스 파트너십 (DANIDA Green Development Cooperation)은 시장 주도형 녹색 전환과 포용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덴마크의 개발 협력 전략인 “The World We Share“에 부합
  - 덴마크-아랍 파트너십 프로그램(Danish-Arab Partnership Programme)은 2003년에 시작되어 현재 2022-2027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파트너 및 협력 기관으로는 덴마크 인권 연구소, 국제 미디어 지원(IMS), KVINFO 있음.
    - 청년 고용 창업 프로그램(Youth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은 MENA 지역의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을 장려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창업 교육, 멘토링,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킹 이벤트를 주최하여 협업과 정보공유를 촉진함
  - 우간다 양자 개발 프로그램(Bilateral Development Programme in Uganda)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며 이 프로그램은 우간다의 녹색,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변환을 지원하며, 인권을 증진하고 인근 국가에서 오는 난민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아. DANIDA Fellowship Center

- 일시: 2024년 8월 30일(금), 13:00-14:30
- 장소: DANIDA Fellowship Center, Copenhagen, Denmark

○ 참석자: Ulla Naesby Tawiah (Director, DANIDA Fellowship Center)

□ (DFC 개요) DANIDA Fellowship Center는 1990년에 설립된 자치기관으로, DANIDA가 제공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자금으로 운영됨

○ DFC는 개발 연구 보조금의 관리와 학습 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해 역량 개발과 지식교류를 지원하며, DFC의 최고 기관은 덴마크 외교부가 3년 임기로 임명하는 이사회임

□ (연구 협력) DANIDA의 연구 협력 프로젝트(Research Collaboration Projects)는 덴마크 외교부 산하 DANIDA Fellowship Centre가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목표를 함. DFC는 2008년부터 연구 협력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함.

○ 연구 주제로는 기후 변화, 농업, 보건, 에너지, 물, 식량, 경제 개발, 민주주의 및 법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는 덴마크와 중점협력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연구자들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짐.

○ 연구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은 연례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고 신청 절차로는 공모 발표, 연구보조금 신청서 제출, 평가 및 선정, 프로젝트 실행 및 관리로 이어짐

- 주요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됨
  - 중점협력국 연구 협력 프로젝트: 중점협력국에서의 연구 협력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주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국가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함
  - 성장국 연구 협력 프로젝트: 선택된 성장국에서의 연구 협력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주로 경제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음.
  - 대학 역량 강화 프로젝트: 선택된 아프리카 대학의 기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대학의 연구역량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둠

○ DANIDA Fellowship Centre는 연구 협력 프로젝트의 신청 및 관리 과정을 담당하며, 주요 역할로는, 연구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평가,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자 간 네트워킹 및 지식 교환 촉진이 있음.

□ (거버넌스와 운영체제) DANIDA Fellowship Center는 개도국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ODA 기관으로 외교부의 감독과 관리하에 있음

-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외교부에서 펀딩의 규모와 협력대상국, 주제를 정하고 DANIDA FC는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지원서를 접수하고 덴마크와 해외의 여러 분야의 교수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에서 사업수행자를 결정
    - 연구 주제는 에너지, 녹색 투자, 사회경제, 해양부문, 도시계획 등이 있음
  - 최근 기준으로 매년 약 120건의 지원서를 받고 1단계에서 45건을 합격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상세 프로포절과 컨셉 노트를 제출토록 한 후 최종적으로 20건을 선정
    - 프로포절은 덴마크 기관과 협력국 기관이 반드시 협력하여 작성해야 하며, 협력국 박사과정 학생 선발과 수학 대학, 졸업 계획 등도 포함하여 역량개발과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 연구 프로젝트는 5년간 지속되며 매년 약 20개의 과제를 신규로 착수하게 되므로 매년 100개 과제가 진행되지만, 일부 지연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약 120-130개 과제를 관리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의 에너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녹색 에너지, 예를 들어 풍력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덴마크의 대학, 예를 들어 덴마크기술대학에 연락하면, 이미 협력관계가 되어 있는 케냐 등 여타국과 2~3주 정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프로그램 내에서 동료 간 상호 학습 등을 활용
  - 프로그램의 평가는 교육과정 개시 전 프로그램 주제의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같은 주제의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비교 평가하는 방식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
  - 프로그램 중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는 협력대상국의 언론인도 초대하여 함께 교육을 수행하는데 이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보고서가 작성되어도 이것이 정책 결정자나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효과성이 크게 낮아지므로 이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프로그램의 결과는 현지 언론의 press release로 발표
- (DANIDA와 KSP) DANIDA의 ‘The World We Share’와 한국의 KSP는 모두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접근 방식과 지원 분야에서 차이가 있음
- DANIDA는 연구 협력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KSP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며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함 두 프로그램은 서로

- 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며, 각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협력할 가능성이 있음
- DANIDA는 주로 연구 협력, 모빌리티 보조금, 대학 역량 강화 등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각국 연구자 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도출하는 반면, KSP는 맞춤형 정책자문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정책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실행 계획을 제공

#### 자. Dutch NUFFIC (Organization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 일시: 2024년 9월 2일(월), 10:30-11:30
- 장소: NUFFIC, Hague, Netherlands
- 참석자: Monique Knaapen(Public Information Advisor)

- (NUFFIC) 네덜란드 정부, 교육 기관, 국제 파트너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국제 교육 분야 ODA를 시행하고, 장학금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글로벌 교육에 관련된 학생과 기관에 자원을 제공
- Orange Knowledge Programme (OKP)는 네덜란드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교육 및 훈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장학금 제공, 교육 기관 간 파트너십 형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
  - 특히,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현지 교육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학생과 전문가들이 학위 과정과 단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OKP 프로그램 사례 중 기술 협력 및 KSP 유사 사례는 인도네시아의 사이버 보안 교육이 있음
  - OKP CYBER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이버 보안 교육의 질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훈련하며, 성 평등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육 기관, 정부,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이버 보안 교육 생태계를 구축
  - CYBER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대학교와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교가 협력

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실험실과 교실 설치, 실습 중심의 교육 방식 도입, 혁신적인 교수법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사이버 보안 교육을 확산

-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교육 세션에 초청되어 참여한 전문가들이 실용적이고 참여적인 교육 접근법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 강의 모듈을 개발

o Orange Knowledge Programme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지원 라운드가 없음

-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자인 외무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제공되지 않음

□ (장학 프로그램) 일본의 JICA 장학금과 비슷한 제도로 “LPDP-Netherlands 공동 장학금 프로그램” 이 있습니다.

o LPDP-네덜란드 공동 장학금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협력 기관들이 보유한 자원을 최적화하여 인도네시아의 발전 우선순위와 네덜란드 지식 부문의 핵심 전문성 개발, 그리고 양국 간의 협력 의제를 지원하는 것임

-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교육기금관리기관(LPDP)과 네덜란드 외무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의 상호 중요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o Nuffic Southeast Asia, 인도네시아 교육기금관리기관(LPDP),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DIKTI)가 StuNed 장학금 및 DIKTI-LPDP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 장학금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합의

- 2024년에는 이 협력 프로그램이 LPDP-네덜란드 공동 장학금 프로그램으로 브랜드화되었으며,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참여 네덜란드 고등 교육 기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할 기회를 제공

- 장학금은 물 관리 및 기술, 기업가 정신, 도시 개발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해양, 운송 및 공급망, 보안 및 법치(특히 사이버 보안), 개발 연구, 공공 정책 및 거버넌스, 공중 보건 관리. 추가로 문화유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제공됨

□ (PUM) PUM(Netherlands Senior Experts)은 숙련된 네덜란드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관행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성장

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네덜란드의 정부, 교육기관, 국제 파트너 간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1978년에 설립

- PUM은 개발도상국과 신흥 시장의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1,2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매년 30개국 이상에서 약 1,50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지식공유를 통해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
- PUM은 농업, 원예, 기술 및 직업 훈련, 비즈니스 컨설팅, 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며, 참여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솔루션과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 비즈니스에 장기적인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
- 주요 활동은 기술지원, 정책자문,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PUM 전문가들은 (1) 현지에서 직접 기술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여 현지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2) 교육,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자문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3) 현지 기업과 비영리 단체의 특정 요구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 PUM의 직업교육 혁신 프로젝트 사례로 베냉을 들 수 있는데, 베냉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들이 직업 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육 정책 개선, 학교 관리시스템 도입, 교수진 훈련 등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 교육 정책 문서 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해 현재 교육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교육 관계자들과의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
  - 학교 관리와 품질 보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통해 관리 기술을 향상
  - 교수진을 위한 교육 방법론 지원 및 실습 중심의 교육 세션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직업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차.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일시: 2024년 9월 2일(월), 14:00-16:00
- 장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Hague, Netherlands

- 참석자: Jorrit Oppewal (Advisor to the Independent Advisory Council on International Affairs), Henny Gerner (Strategic Policy Advisor, the Bureau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네덜란드 ODA 개요) 네덜란드는 식량, 물, 성 및 생식 건강, 인권,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 참여 등 주제별 우선순위를 양자 및 다자간 공적개발원조(ODA) 전반에 걸쳐 적용

- 2023년 네덜란드의 총 ODA는 74억 달러로 증가하여 국민총소득(GNI)의 0.66%를 차지

- ODA의 지역별 배분을 살펴보면, 양자 ODA 중 12.4%가 저소득국(LDC) 이하에 지원되었으며, 16.9%가 아프리카 지역에 배정됨

- ODA 중점분야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인도적 지원, 난민 지원, 빈곤과 성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영양, 농업, 수자원 등의 기본 필요와 권리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는데 중점

- 네덜란드 외무부가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무역 및 개발협력 장관이 주도적으로 ODA를 추진하는 한편, 개발협력위원회와 네덜란드 의회가 자문 및 감독 역할을 수행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기업청(RVO), 네덜란드 개발은행(FMO), Invest International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NGO, 국제기구, 민간 부문과 함께 실행

-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DGIS)는 네덜란드 외교부 소속으로, 개발 협력 정책과 그 조정, 실행 및 자금 조달에 중점을 두고 운영

- DGIS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네덜란드와 EU 정책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가 참여하는 다중 이해 관계자 접근 방식을 따르며, 이를 위해 DGIS는 UN, 세계은행, EU와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다른 국가 정부와도 협력

- 시민사회는 또 다른 중요한 파트너이며, 여기에는 Novib와 같은 비정부기구와 고용주 연맹, VNO/NCW, 중소기업 로비 단체인 MKB-Nederland와 같은 이익 단체가 포함됨

□ (네덜란드 ODA사업의 특징) 외무부 ODA 사업들은 외무부에서 자금을 지원

하지만, 다양한 펀드를 통해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각 펀드는 특정 목표와 타당성에 따라 구성됨

○ 주로 기금의 타당성에 맞는 기금의 유형을 만들어 자금을 지원하며, 다양한 NGO 및 ODA 사업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

○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각국의 필요에 맞춘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프로젝트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네덜란드의 접근 방식은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KSP 프로그램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KSP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주제의 정책 제안과 실행 계획을 제공하는 데 반해, 네덜란드의 ODA 사업은 인권 보호, 기후 변화 대응 등 중점분야에서 현지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

□ (기술지원 프로그램) 네덜란드의 ODA 기술지원은 주제별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자국의 경제발전 역사 등을 고려하여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식량안보, 농업, 물 관리, 여성 권리, 사법 정의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 변화를 추가하고, 초등교육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제외하였음

○ 각 주제는 특정국에 관한 것은 네덜란드 현지 대사관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복수의 국가가 관련된 다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대부분을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및 연구소 등 외부기관을 통해서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정권 교체 등으로 집권당의 외교 정책이 조정되거나 협력국 현지의 뇌물, 거버넌스 체제 붕괴, 난민 문제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기인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기구에 위험관리를 대행토록 함에 따라 정치권과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현재 네덜란드 ODA의 약 25% 차지)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경제협력, 외교전략에 대한 고려가 정권에 따라 바뀔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사업 중단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제기구가 수행한다고 하면 이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임

- 대상국에 관하여는 OECD에서 취약국으로 지정한 수원국이 전체의 50% 정도이며, 아프리카 국가와 우크라이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네덜란드의 기술지원 또는 지식공유사업은 유엔, 세계은행 등과 밀접한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o 네덜란드 ODA는 기본적으로 수원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민간,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98%)이며 이것이 ODA의 효과성을 높인다고 믿기 때문임 (그러나 다른 참석자는 네덜란드 정부가 수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수준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
  - 기술지원 또는 지식공유의 목적이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라면 수원국의 민간개발과 시민사회 기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G2B가 중요하겠지만, 국가간 외교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면 G2G 형태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
- o ODA 예산은 매년 조정되고 변동성이 크지만 주어진 예산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할지는 부문, 국가, 참여자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다년 프로그램들은 개시 시점에 확보된 것이므로 이 예산을 제외한 잔여 예산으로 신규사업을 편성
  - 적어도 모든 권장 사항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내 난민에 사용되는 ODA의 예산도 약 25%에 해당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이의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향후 10% 수준으로 하락할 수도 있음
-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DA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trade and aid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고 이는 ODA도 경제침체와 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
  - 네덜란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 수입 등 대외부문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ODA 주제와 협력국 선정 시 상대국이 좋은 투자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자국 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나 경제가 개선되면서 이러한 경제적 고려는 더 이상 지배적인 원칙이 아님
  - 현재는 국가안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우크라이나, 중동 국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
- (수입진흥센터, CBI) 경제협력과 관련된 지원기관으로 CBI(Centre for the Promotion of Imports)는 네덜란드 정부 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이 국제 시장, 특히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CBI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주요 활동으로는 기술지원, 시장 정보 제공, 무역 장벽 해소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임
- (국제사회연구소, ISS) 학위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국제사회연구소(ISS)는 에라스무스 대학교 로테르담(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내의 대학 연구소로 운영되며, 그 사명과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대학의 자원과 자금 지원 기회를 활용
  - 1952년 네덜란드 대학과 네덜란드 교육부에 의해 설립된 ISS는 개발 연구 및 국제협력 분야의 연구, 교육, 공공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헤이그에 위치한 ISS는 2009년에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교의 일부가 됨
  - (교육) ISS는 개발학 석사(MA) 과정과 박사(PhD)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 개발, 경제, 사회적 정의, 인권 등의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다양한 단기 과정과 워크숍을 통해 전문가들이 최신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
  - (연구) ISS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학제적 연구를 수행합니다. 연구 주제는 글로벌 사회 문제를 다루며, 국제 연구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
  -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ISS는 개발도상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현지 기업과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카. KUNO: Platform for Humanitarian Knowledge Exchange

- 일시: 2024년 9월 2일(월), 16:00-17:00
- 장소: KUNO, Hague, Netherlands
- 참석자: Peter Heintze (Coordinator)

- (KUNO 개요) Dutch Knowledge Exchange Organizations는 학계, 정책 입안자, 실무자, 기업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네덜란드 인도주의 부문의 혁신 역량을 향상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KUNO 플랫폼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며, 인도적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 제안과 제도적 개선을 지원하며, 특히, 인도적 지원의 현지화(localisation)와 관련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로컬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

o KUNO는 DRA(Dutch Relief Alliance)의 “Shifting Minds & Setting the Course: Dutch Relief Alliance Localisation Strategic Priority” 의 인도적 지원 효과 극대화 및 지원 활동의 현지화에 대하여 평가하고 로컬 파트너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제안

- DRA는 현지화를 주요 우선순위로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로컬 파트너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역량개발에 투자하며 파트너십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KUNO는 이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제안을 진행하면서 학회 등과 협력하며 워크숍을 개최

o KUNO의 주요 평가 사례는 다음과 같음

-시리아 사례: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했으며, DRA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 지역에서 효과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로컬 파트너의 참여를 촉진하여 지원 활동의 설계와 실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로컬 파트너의 역량이 크게 강화

- 나이지리아 사례: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은 테러와 폭력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으며, 이로 인해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DRA는 로컬 파트너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현지화 비율을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로컬 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임

- 콩고민주공화국 사례: DRC는 지속적인 내전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 중 하나로, DRA는 로컬 파트너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안전 및 보안 비용을 포함한 지원 비용을 배분함으로써, 안전 기준과 규제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지원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INCLUDE) INCLUDE는 아프리카의 포용적 발전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아프리카-네덜란드 지식 플랫폼으로, 2012년 네덜란드 외교부가 설립하였으며,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식의 창출, 수집, 전파에 중점

o INCLUDE는 포용적 개발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네덜란드 기반의 연

구 및 자문 기관으로,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정책 대화와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

- 주요 활동으로는 정책 제안, 제도적 분석, 기술지원, 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며, 여러 연구를 진행
  - 포용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CSO)의 진화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술 지원과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지식공유와 역량 강화를 통해 CSO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프로그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한 지식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사회 및 경제적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연구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정책 입안자에게 증거기반 권장 사항을 제공